

##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타난 실존주의적 직업관 이해 : 문학 이론의 형이상학적 대중화 연구\*

송 태 효  
(고려대학교)

### ■ 차례 ■

- I. 서론: 문학과 직업
- II. 생텍쥐페리에 관한 실존주의적 평가
- III. 『어린 왕자』의 실존적 분석
- IV. 실존으로서의 자기 초월
- V. 결론: 직업의 재발견

### I. 서론 : 문학과 직업

1943년 뉴욕의 레이날 앤 히치콕Reynal & Hitchcock 출판사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동시에 출간한 *Le Petit Prince*와 *THE LITTLE PRINCE*가 올해 4월 6일 일흔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최근 인도의 고빠반두 미쉬라 Gopabandhu Mishra가 인도유럽어족의 조상어인 산스크리트로 번역하여 26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읽히게 된 『어린 왕자』는—1,27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서』를 제외하면—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작품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9643)

이와 더불어 『어린 왕자』에 관한 연구 역시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어린 왕자』의 기원과 주제, 등장인물의 특성과 수사, 베스트셀러 판매 부수의 비밀 나아가 이 우화의 대상이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우리 학계에서도 『어린 왕자』에 관해 비교문학적 관점,<sup>1)</sup> 주제 비평적 관점,<sup>2)</sup> 수용미학적 관점,<sup>3)</sup> 해석학적 관점,<sup>4)</sup> 아동문학적 관점<sup>5)</sup>, 회화적 관점,<sup>6)</sup> 치유적 관점,<sup>7)</sup> 현상학적 관점<sup>8)</sup>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와 대중 모두에게 친밀한 『어린 왕자』이지만 사실 『어린 왕자』는 그리 호락호락한 내용의 동화가 아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기억하는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본질에 관한 명제 그리고 그리 익숙하지도 않은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매혹적이었고, 웃었고, 양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야.”라는 존재에 관한 명제에 이르기까지 『어린 왕자』는 어른들로서 생각해볼 만한 실존적 성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찰이 생텍쥐페리가 겪은 십여 가지 이상의 직업<sup>9)</sup> 특히 비행과 관련한 일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주제어—직업, 관계 맺음, 길들임, 책임, 인내—가 비행사로서의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Antoine de Saint Exupéry<sup>10)</sup>의

- 1) 배기열, 「프랑스 문학 속의 불교적 이마쥬-생텍쥐페리 문학사상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17권, 한국불어불문학회, 1982, pp. 187-205.
- 2) 이정숙, 「생텍쥐페리\_작품에 그려진 작가의 고독과 고독의 승화」, 한국프랑스학회 춘계학술발표, 2002, pp. 26-34.
- 3) 어순아, 「〈어린 왕자〉에 대한 한국인과 프랑스인의 이해 비교-독서 양케트 분석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제83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10, pp. 345-384.
- 4) 김시몽, 「어린 왕자의 재해석」, 『한국프랑스학논집』 제72집, 한국프랑스학회, 2010, pp. 241-261.
- 5) 정채봉, 「생텍쥐페리가 한국 아동 문학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연구』 제20권,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pp. 95-103.
- 6) 장성욱, 『그림으로 읽는 어린 왕자』, 도서출판 숲, 2003.
- 7) 장성욱, 「목도리의 의미 분석」, 『프랑스문화연구』 제4권, 프랑스문화학회, 2000, 161-179.
- 8) 이효진, 『〈어린 왕자〉에 나타난 아동 생활 세계의 현상학적 이해』,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9) 생텍쥐페리는 국립 미술학교 청강생과 오페라 대역 가수 시절을 거쳐 타일제조회사 근무자, 트럭공장 CEO, 리포터, 특파원, 에어프랑스 홍보 담당, 공군정비사, 민간비행사, 육군비행사, 우편비행사, 인질협상가, 항공노선탐사사, 비행착륙장치개발가 등 많은 직업을 섭렵하였다.

직업인 조종사로서 비행 업무로 만난 인간과 자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조난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용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자신의 도덕성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족관계, 시대상황, 계층, 갈등, 빈부 격차 등 현실 세계의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 작가의 상상을 토대로 구성된 작품이 드러내는 것은 직장인으로서의 인간 즉 현존재 혹은 세계-내-존재 *Inder-Welt-sein*로서의 인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텍쥐페리가 인간관계의 토대로 삼은 직업의 실존주의적 의미를 토대로 생계 수단 이상의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은 독자들의 인문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학의 가치를 선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하이데거의 평가를 출발점 삼아 『어린 왕자』가 담고 있는 실존주의적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생텍쥐페리에 관한 실존주의적 평가

『렉스프레스 *L'Express*』 지가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하이데거를 『어린 왕자』 예찬자로 보도하였듯이, 하이데거는 생텍쥐페리의 마지막 작품 『어린 왕자』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었다.<sup>11)</sup> 하이데거는 자신의 애독서를 궁금해 하는 기자에게 『어린 왕자』를 추천하며 20세기에 쓰인 위대한 실존주의 저술 가운데 한 권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sup>12)</sup> 심오하고 복잡한 무신론적

10) Saint-Exupéry의 이름에 쓰인 연결부호 ‘-’은 출판 편집자들이 작가 본인이 서명한 이름에 ‘-’가 누락됐다고 여기고 교정한 오류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야간 비행 *Vol de Nuit*』에는 ‘Antoine de Saint-Exupéry’ (Antoine de Saint Exupéry)로 표기하고 있다. Cf. Laurent de Bodin de Galember, “*Idée, idéalisme et idéologie dans les Œuvres choisies de Saint Exupéry*”(2000)과 “*Le Sacré et son expression chez Antoine de Saint Exupéry*”(Université Paris IV, 2006) 그리고 2003~2008년까지 거의 매년 출간된 Nathalie Des Vallières, *Antoine de Saint Exupéry Art, Writings and Musings* 및 Maurice Grevisse et André Goosse, *Le Français Correct*에도 ‘-’이 생략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 초록에는 Saint Exupéry로 표기하기로 한다.

11) [http://www.lexpress.fr/culture/livre/saint-Exupéry\\_800704.html](http://www.lexpress.fr/culture/livre/saint-Exupéry_800704.html)

12) Laurence Gagnon, Untitled in *Children's Literature Review*, vol. 10. Ed. Gerard J. Senick. Detroit, Michigan: Gale Research Company, 1986. pp. 159-160. Cf. Antoine de Saint-Exupéry, *Œuvres complètes*, tome II, Bibliothèque de Pléiade, Garamond, 1999.

실존주의로 시대의 사상을 주도하던 사르트르와는 달리 진술한 복합성으로 존재의 의미를 묻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에 빠져든 독일 철학자는 1949년 판 독일어본 『어린 왕자』 표지에 다음과 같은 발문을 남겼다.

Ce n'est pas un livre pour enfants, c'est le message d'un grand poète qui soulage de toute solitude et par lequel nous sommes amenés à la compréhension des grands mystères de ce monde.<sup>13)</sup>

『어린 왕자』는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다. 『어린 왕자』는 모든 고독을 달래주고, 세상의 장엄한 신비를 이해하게끔 인도하는 위대한 시인의 메시지이다.

‘세계-내-존재 l'être-dans-le monde’<sup>14)</sup>로서의 인간 즉 현존재의 고독을 존재론적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은 하이데거는 “나는 이렇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고독하게 살았다. 육 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도.”<sup>15)</sup>라는 『어린 왕자』 도입부 작가의 고백에 호감을 느꼈을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고독하기 마련이라는 여우의 지혜로움 가득한 메시지에서도 하이데거는 생텍쥐페리와 동류의식을 나누었다. 나아가 시를 침묵의 비밀로 여기는 하이데거로서는 시종일관 질문을 던질 뿐 눈물과 광채의 기이함으로 가득한 어린 왕자의 시적 매력에도 빠졌을 것이다. 말이 품는 침묵의 비밀로의 여정을 창조적 시로 받아들이는 하이데거에게 『어린 왕자』는 진정 위대한 시인의 전언이었다.

하이데거는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마음을 강조한 생텍쥐페리의 실존적 인간관 가운데서도 책임이 곧 인내임을 강조하는 여우의 말에도 귀 기울였다. 여우는 오직 길들인 것만 알 수 있으며 길들임은 인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한다.<sup>16)</sup> 인내야말로 현대인에게서 사멸되어버린 미덕임을 누차 환기

p. 1355.

13) Rouba Borgi, *Le Petit Prince*(Antoine de Saint Exupéry) *Etude et Commentaire*. <http://www.ipastorale.ca/bibliovirtuelle/textes/oct-06.htm>

14)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사르트르의 명제와 달리 “인간의 본질은 그의 실존 속에 있다.”라는 하이데거의 명제를 드러내는 용어이다. 하이데거에게 인간 즉 현존재의 본질은 언제나 실존에 의거한다. Cf. André Lalande. *Vocabulaire technique et critique de la philosophi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0, p. 320.

15) Antoine de Saint-Exupéry, *Le Petit Prince* in *Œuvres complètes*, tome II, p. 237.

시키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인내의 철학이라고 불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관계 맺음을 위해서는 진정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여우의 말 역시 그의 인내의 철학과 상응하고 있다.

Patience is the truly human way of being thoughtful about things. Genuine patience is one of the basic virtues of philosophizing – virtue which understands that we always have to build up the pile of kindling with properly selected wood so that it may be one point catch fire.<sup>17)</sup>

인내는 사물에 대해 사색적 존재로 되는 진정한 인간의 길이다. 진실한 인내는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기본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 덕목은 불을 한 번에 붙이려면 항상 제대로 고른 나무로 불쏘시개 더미를 쌓아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양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는 신앙의 붕괴와 소외의 심화로 극심한 긴장과 불안의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내심을 상실한 레디메이드 사회, 물화되고 탈종교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염원과 현실 세계의 양립 불가능성을 절감한 현대인들은 세상과의 괴리를 느끼며 고독에 직면해 있었다. 카뮈가 부조리라고 부른 인간과 세계의 갈등과 대립으로서 부조화(불협화음)는 개인의 형이상학적 결단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다. 프랑스 실존주의가 탄생하기 이전, 생텍쥐페리는 이미 인간이기에 고독할 수밖에 없는 현존재의 조건을 깨닫고 관계 맺음으로서의 우정과 직업, 도구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생각이 사르트르의 스승 마르틴 하이데거로 하여금 『어린 왕자』를 20세기의 위대한 실존주의 저술 가운데 한 권으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르트르 역시 생텍쥐페리의 문학 속에서 실존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미셸 케넬은 그의 유명한 저술 『생텍쥐페리 혹은 시의 진실 *Saint-Exupéry ou la vérité de la poésie*』에서 사르트

16) *Ibid.*, p. 295

17) Martin Heidegger, *Hegel's Phenomenologie of Spirit*, p. 73, trans. P. Emad and K. Maly, Bloomington, Indiana, 1994. (Cité in Lee Braver, *Groundless Grounds, A Study or Wittgenstein and Heidegger*,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p. 241)

르가 생텍쥐페리를 실존주의로 규정한 기사들과의 대화를 인용한다. 사르트르에게는 생텍쥐페리가 전통적 사유와 문학에 세뇌되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관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Saint-Exupéry? Existentialiste, il l'est par la soudaineté de cette évidence, par cette vision de l'homme surgie du commerce des hommes et non reçue d'une tradition et d'une culture.<sup>18)</sup>

생텍쥐페리? 그는 하나의 전통이나 문화로부터 주입된 것이 아닌, 인적 교류로부터 툭 불거져 나온 그 명증성의 돌연함과 인간에 대한 비전으로 인해 실존주의자이다.

생텍쥐페리는 시인도 아니고 전업 작가도 아니었다. 그의 소설과 에세이, 시나리오와 편지 심지어 그의 데생과 몇 편 안 되는 시는 대부분 그의 다양한 직업 다시 말해 리포터, 특파원, 포로협상가, 비행사, 엔지니어로서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그의 소설은 비행 일지 연작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비행 준비 과정, 비행 상황과 동료들과의 관계와 비행 거점 지역 주민들의 삶 그리고 이와 관련한 행정 관료들의 업무 태도에 관한 관찰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찰이 당시 자신의 비행 관련 업무에서 비롯한 것이다. 비행사가 되기 전 그의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직업에 관한 사회적 통념을 지닌 어른들은 그에게 그림은 그만두고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에 열중하라고 충고한다. 이후 화가의 꿈을 접은 그이지만 항상 자신의 그림 1호인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그림을 지니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았다. 실제로 『어린 왕자』의 도입부는 그가 직업상 세계를 비행하며 기착지에서 만난 사람들에 관한 소감을 밝히며 시작된다.

J'ai ainsi eu, au cours de ma vie, des tas de contacts avec des tas de gens sérieux. J'ai beaucoup vécu chez les grandes personnes. Je les ai vues de très près. Ça n'a pas trop amélioré mon opinion. Quand j'en rencontrais une qui me paraissait un peu lucide, je faisais l'expérience sur elle de mon dessin numéro 1 que j'ai

18) Michel Quesnel, *Saint-Exupéry ou la vérité de la poésie*, Plon, 1964, p. 23.

toujours conservé.<sup>19)</sup>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나는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어른들 세계에서 많이 살았다는 얘기다. 나는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어른들에 대한 견해가 그다지 나아진 것도 아니다. 어른들 가운데 어느 정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로 시험해 보았다.

그의 실험은 언제나 실패의 연속이었다. 실망한 그는 이들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경험의 산물인 보아 뱀과 원시림, 별에 대해 언급을 삼간다.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추어 트럼프, 골프, 정치, 넥타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고 만족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생텍쥐페리 소설에는 긍정적인건 부정적인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의 다양한 직업이 등장할 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한 자신의 책임감이 곧 자신의 문학과 상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진솔한 표현이 풍부하게 전개되고 있다.

생텍쥐페리는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겪는 체험을 통해 접하는 낯선 존재에 대한 책임을 우의적인 이미지들로 전하며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드러낸다. 낯선 존재와 책임의 관계는 생텍쥐페리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주제로서 『어린 왕자』 이전의 작품에도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대지 *Terre des Hommes*』의 경우가 그렇다. 프랑스 실존주의가 탄생하기 이전의 작품인 『인간의 대지』(1939)는 어린 왕자와 비행사의 실존적 대화,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의 죽음과 대면한 절대 고독 그리고 낯선 배두인 족에 의해 구조된 순간 느끼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다루고 있어 『어린 왕자』의 전편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 사르트르가 이 작품을 실존주의의 기원으로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당시 대부분의 선배 작가들 심지어 초현실주의 작가들마저도 일촉즉발의 긴박한 현실의 갈등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앙드레 말로와 생텍쥐페리의 경우는 달랐다. 평화 문학에 전념해오다 전쟁이라는 물리적 현실을 겪고 나서야

19) *Le Petit Prince*, pp. 236-237.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선배 작가들과는 대조적으로 말로와 생텍쥐페리는 애초부터 유럽이 전쟁 상태였음을 인식하고 전쟁 문학이라는 거대한 공적을 이루었다는 것이다.<sup>20)</sup>

사르트르는 그가 선배 작가들의 주관주의와 정적주의에 대항하여, ‘직업과 도구’의 문학의 위대한 특성을 묘사한 생텍쥐페리를 소비 문학을 대신하는 건설 문학의 선구자로서, ‘전쟁과 건설, 영웅주의와 직업, 행동, 소유의 존재, 인간 조건’이 현대 문학과 철학의 기본 주제임을 보여준 선각자로 자리매김 한다.

C'est au projet de même de le changer qui révèle les secrets de son être. On a du marteau, dit Heidegger, la connaissance la plus intime quand on s'en sert pour marteler. Et du clou, quand on l'enfonce dans le mur et du mur quand on l'enfonce le clou. Saint-Exupéry nous a ouvert le chemin, il a montré que l'avion, pour le pilote, est un organe de perception.<sup>21)</sup>

세계는 세계를 바꾸려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 비밀들을 드러낸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망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망치를 가장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을 벽에다 대고 두드릴 때이다. 그리고 못이라는 것은 그것을 벽에 박을 때 그리고 벽이란 것도 그 위에 못을 박을 때 그러하다. 생텍쥐페리가 우리에게 길을 열었다. 비행사로서는 비행기가 지각 기관임을 보여준 것이다.

사르트르는 지각 기관의 인식을 스승 하이데거의 도구의 인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행동으로서의 망치질에 대한 지식은 망치와 벽, 벽과 못을 연결 짓는 망치와 벽과 못의 관계 맺음으로서의 망치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독에서 출발한 위대한 시인의 메시지, 도구와 행동의 건설 문학이 지각의 문제로 확장된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움은 여전하며,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길들여진 것뿐이며 그것은 곧 관계 맺음이라고 어린 왕자에게 말하는 여우의 충고에서 그러한 실존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실존주의 사조가 『인간의

20) WANG Mu, *Les Pensées Existentialistes dans Le Petit Prince*, Canadian Social Science, Vol. 8, No. 6, 2012, pp. 233.

21) Jean-Paul Sartre, *Situation de l'écrivain en 1947* in *Qu'est-ce que la littérature?* Gallimard, 1948, p. 237. (이하 *Situation*)

대지』 이후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가 『어린 왕자』의 실제 배경이 된 사하라 사막에서의 불시착과 구조 과정을 소설로 담아낸 『인간의 대지』를 실존주의의 기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sup>22)</sup>

사르트르 외에 프랑스 철학자 가운데 생텍쥐페리 문학에서 실존주의를 강조한 철학자로 모리스 메를로퐁티 Maurice Merleau-Ponty를 들 수 있다. 파리 고등사범학교 출신 동문이자 친구로서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 드러난 즉자와 대자에 관한 이원론적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 모리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이원론적 사유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 그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의식이란 원래 ‘나는 ...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sup>23)</sup> 두 사람은 한국 전쟁에 관한 입장의 차이로 결별하게 되지만 전통 형이상학에서 벗어나 사물 자체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사유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메를로퐁티 역시 생텍쥐페리에게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생텍쥐페리의 자신을 넘어서는 영웅주의적 선택이다. 아르헨티나 항공 우편 회사 아에로포스탈 아르헨티나 컴퍼니 Aeropostal Argentina Company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는 소설 『전시 조종사 *Le Pilote de Guerre*』에서 생텍쥐페리는 주인공 리비에르의 입을 빌려 플레이아드 전집의 세 쪽에 걸쳐 삶을 회상하고 있는데, 메를로퐁티는 이 긴 독백을 하나의 문단으로 편집하여 인용하며 자신의 대작 『지각의 현상학』을 마무리하고 있다.<sup>24)</sup>

Ton fils est pris dans l'incendie tu le sauveras... Tu vendrais, s'il est un obstacle, ton épaule contre un coup d'épaule. Tu loges dans ton acte même. Ton acte, c'est toi... Tu t'échanges... Ta signification se montre, éblouissante. C'est ton devoir, c'est ta haine, c'est ton amour, c'est ta fidélité, c'est ton invention... L'homme n'est qu'un nœud de relations, les relations comptent seules pour l'homme.<sup>25)</sup> 그대 아들이 불길에 휩싸여 있어. 아들을 구해내야겠지... 장애물이 있다면, 어깨 한 번 들이받는 사치를 사들이려 한쪽 어깨를 팔아치울 수도 있지. 그대는 그대

22) WANG Mu, *op. cit.*, pp. 233.

23) Maurice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p. 160.

24) *Ibid.*, p. 520.

25) Antoine de Saint-Exupéry, *Le Pilote de Guerre* in *Œuvres complètes*, tome II, p. 191.

행동 속에 존재하는 거야. 그대 행동이 바로 그대라니까... 그대는 그대 자신을 교체 해가는 거지 뭐... 그대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지, 그것도 찬란하게. 그것이 그대의 의무, 그대의 증오, 사랑, 충실성, 창의력이라는 거지... 인간은 관계의 매듭에 지나지 않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관계들뿐이거든.

메를로퐁티가 인용한 부분은 제1부 「몸 *le Corps*」과 제2부 「지각된 세계 *le Monde aperçu*」에 이어지는 제3부 「대자와 세계-로-존재 *l'Être-pour-soi et l'Être-au-monde*」 결론의 마지막 구절이다. 리비에르는 사활이 걸린 긴박한 전투에서 상황을 점검하며 기관총사수와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죽음과 직면하여 애초부터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자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행위들의 의미를 토로하게 된다. 자아중심주의는 자신의 몸에 사로잡혀 몸을 더 중시해 온 사람들의 착각임을 깨달은 것이다. 몸과 행동이 다르며 몸은 끊임없이 교체되어가고 있으며 결국 자신을 벗어나 타인들과의 관계 맺음으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지각의 현상학』 제3부의 마지막 항목 ‘나의 의미는 나를 벗어나 있다 *Ma signification est hors de moi*’의 대단원을 이렇게 생텍쥐페리의 핵심 사상인 관계를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것은 개별적 존재자들이 실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별적 존재자들의 사이로서의 관계가 실재한다고 보는 실존주의자들의 존재론적 사유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 철학은 별개의 철학으로서 자신을 파기하면서 자신을 실현한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철저히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웅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전시 조종사』의 한 구절 “인간은 관계의 매듭에 지나지 않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관계들뿐이거든.”을 인용하며 『지각의 현상학』을 마감한 것이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생각은 생텍쥐페리 작품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친구 사르트르와 정신의 ‘공동의 공간 *locus communis*’을 이루고 있다. 생텍쥐페리는 그의 사후에 출간될 『성채 *Citadelle*』에서도 인간은 관계의 매듭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의 실존적 인간관을 강조하게 된다. 포로 협상가로서 생텍쥐페리는 사막의 제국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으로 근무에 임했다. 제국주의 침략에도 꺾이지 않는 정신의 제국을 열망하던 생텍쥐페리에게는 제국 역시 사람과 동물과 기계와 사막의 매듭이었다. 그것을 친밀하게 조합하는 인

간 역시 그러하다.

Tu es nœud de relations et rien d'autre. Et tu existes par tes liens. Tes liens existent par toi. Le temple existe par chacune des pierres. Tu enlèves celle-ci : il s'écroule. Tu es d'un temple, d'un domaine, d'un empire. Et ils sont par toi.<sup>26)</sup> 너는 관계의 매듭이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너의 관계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너의 관계는 너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사원이 둘 하나하나로 존재하듯. 네가 둘 하나를 빼내면 사원은 붕괴하고 말지. 너는 하나의 사원이고, 하나의 영토이자, 하나의 제국이다. 이들이 너로 인해 존재한다.

국가, 사회, 조직, 개인 모두 구성원들의 다양한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을 총체로 엮어 주는 매듭이 부실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들을 이어주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는 사람과 사물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엮어주는 매듭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텍쥐페리의 경우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진실과 아름다움과 성스러운 것은 모두 관계에 의거한다. 그래서 존재와 소유의 독자성은 부정되며 그것의 인간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유용함에 따라 그 가치가 인정된다. 시와 우정과 사랑은 책 속에 고정된 독자적 가치를 지니는 단어가 아니라 책 속의 단어들의 관계 맺음인 것이다.

### Ⅲ. 『어린 왕자』의 실존적 분석

관계 맺음에 근거한 실존철학은 『어린 왕자』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대중에게 다가 간다. 스스로 선택한 행위 속에서 본질이 이루어져 감을 독자에게 일깨우는 어린 왕자와 어른들, 어린 왕자와 여우와 뱀, 어린 왕자와 비행사의 대화는 아무런 배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 출생의 기원, 가족 관계, 성장 배경에 관한 서술이 하나도 없다. 어린 시절 작가 자신의 고귀한 추억을 술회하는 경우는 있으나 어린 왕자의 가족 환경이나

26) Antoine de Saint-Exupéry, *Citadelle* in *Œuvres complètes*, t. 2, p. 720.

사회적 배경에 관한 한 작가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에 씨앗으로 날아와 꽃을 피운 장미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이 장미를 사랑하게 되듯이 우리는 어린 왕자에 관한 특별한 지식 하나 없이도 그에게 매료되고 만다. 어린 왕자의 아버지나 가족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마도 작가가 이 우화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관계있을 것이다. 즉 사물에 관한 사전 지식과 그에 관한 규정은 실제 인간관계로서의 실존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까닭이다. 주인공 비행사의 노력으로 밝혀지는 어린 왕자의 배경 지식은 이 우화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비행사가 어린 왕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진전하며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권력욕의 상징 절대군주, 과대망상증에 걸린 허영장이, 부끄러움의 순환 기계인 알코올 중독자, 무용한 소유욕의 사업가, 수동적 성실함의 노이로제 환자 가로등지기, 무용한 지식에 굶주린 관념적 지리학자를 차례로 만난다. 이들은 모두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어린 왕자를 반기기도 하고 귀찮게 여기기도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계를 향해 닫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기이하게만 여긴 어린 왕자는 이들과 친구가 될 수 없었기에 지리학자가 평판이 좋다고 추천한 지구를 방문하게 된다. 사막에서 만난 뱀과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과의 만남으로 지혜는 오직 관계 속의 길들임으로만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어린 왕자는 자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비행사에게 들려준다. 이제 친구가 된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도움으로 사막에 숨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지혜의 샘물을 마시며 도르레가 내는 음악 소리에 귀를 연다. 그리고 뱀을 찾아가 그 독에 물린 어린 왕자는 몸을 버리고 영혼으로 부활하여 양을 그려준 비행사에게 보답으로 별들의 웃음소리를 선물하며 고향별로 귀환한다.<sup>27)</sup>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식,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선 어린 왕자와 이 어린

27)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에서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의 왼손은 『티마이오스』 *Tίμαιος*를 들고 있다. 몸과 영혼과 우주에 관한 소크라테스와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헤르모크라테스 그리고 익명의 철학자와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 책은 인간이 별에서 지구로 와서 살다 그의 영혼이 다하면 사람의 태도에 따라 각기 다른 상태로 귀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f. *The Timaeus of Plato*, edi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Richard Dacre Archer-Hind, Cambridge, 1888, p.141.

왕자의 기원을 찾아가는 비행사의 회고가 어우러진 이중 구조를 통해 생텍쥐페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여 세상과 단절되어 완전한 고립에 빠지지만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의 화려한 비행기록과 그로 인한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무적 경험 속에서 어떤 진지한 대화도 나누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다. 인간적 친밀함보다는 이미 정해진 사회적 자본으로서 인간관계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던 현존재로서의 자신을 구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관계에 의해 구속당하지 않고 관계를 통해 자신을 열어간다. 신분에 구속되어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선택과 행동에 의한 교류에 의하여 관계가 형성될 때 지금-여기로서의 인간 즉 현존재는 언제나 세계와 인간을 향해 열려 있다. 새로운 지식도 접하고 친구도 구할 겸 자신의 고독한 별을 떠나 기이한 어른들의 소행성을 거쳐 지구에 온 어린 왕자는 확정된 실체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마음의 창이다. 어린 왕자는 이 창을 통해 세상을 조망하는 주체가 아니라 창 자체로 다가 온다. 어린 왕자는 열린 창이자 세계-로-존재로서 세계 뱀과 여우와 비행사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존재를 이루어간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 맺음이다. 생텍쥐페리는 『인간의 대지』(1939)에서 이렇게 말했다.

Telle est la morale que Mermoz et d'autres nous ont enseignée. La grandeur d'un métier est peut-être, avant tout, d'unir des hommes : il n'est qu'un luxe véritable, et c'est celui des relations humaines.<sup>28)</sup>

이러한 것이 메르모즈와 다른 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다. 아마도 하나의 직업이 지닌 위대함이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하나로 맺어 주는 것이리라. 사치스러운 가운데 딱 하나 진실한 것도 있으니, 그 진실된 사치란 바로 인간관계라는 사치이다.

수년 후 카뮈는 『시지프 신화』에서 거의 동어반복에 가까운 표현을 통해 인간관계로서의 우애와 우정의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더구나 카뮈의 문장은

28) Antoine de Saint-Exupéry, *Terre des Hommes* in *Œuvres complètes*, tome I, p. 189.(이하 *Terre des Hommes*)

“‘정신’이 점토에 숨결을 불어넣는다면, 오로지 그러한 정신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대지』의 마지막 구절의 주석 같은 인상을 떨칠 수 없게 한다.

Il n'y a qu'un seul luxe pour eux et c'est celui des relations humaines. Comment ne pas comprendre que dans cet univers vulnérable, tout ce qui est humain et n'est que cela prend un sens plus brûlant? Visages tendus, fraternité menacée, amitié si forte et si pudique des hommes entre eux, ce sont les vraies richesses puisqu'elles sont périssables. C'est au milieu d'elles que l'esprit sent le mieux ses pouvoirs et ses limites. C'est-à-dire son efficacité.<sup>29)</sup>

영웅들에게는 딱 하나의 사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라는 사치이다. 이 나약한 세계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 그리고 그저 인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모든 것이 더욱 강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어찌 이해하지 못할까? 경직된 얼굴들, 위협받는 우애, 사람들 사이로 존재하는 그토록 강렬하고 경건한 우정, 이런 것들이 야말로 곧 사라져가는 것이기에 진정한 부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 한 복판에서 정신은 그 힘과 한계를 느낀다. 다시 말해서 정신의 효력 말이다.

생텍쥐페리는 자신의 소설들 속에서 의식과 교양이 사라져 가는 교육 풍토를 풍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왕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성적에만 관심을 쏟는 어른들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비행사가 되기 이전의 작가가 어른들과 나누는 대화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에서 만난 어른들과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와 책임, 인내가 배제되어 있다. 구도 여행기로서의 『어린 왕자』는 어른과 아이 사이의 소통 불가능한 대화를 통해 진실을 염원하는 인간과 불합리한 사회 현실 사이의 갈등을 묘사한다. 실존주의자들의 세계관에 상응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 작가는 실존주의 작가와 사상가처럼 불합리한 세계를 청산하고 인간다움의 본질을 복원할 방법을 모색한다.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행동과 책임을 권유하는 실존주의의 경우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부조리와 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생텍쥐페리는 자신의 본성을 도야하고 세계와 자신을 길들이는 행위<sup>30)</sup>를 통해 이러한 자유의 가능성을 가늠한다.

29) Albert Camus, *Le mythe de Sisyphe*, folio essais, 2013, p. 122.

이러한 자유를 상실한 인간들이 바로 어린 왕자가 이웃 소행성을 방문하며 만난 어른들이다. 어른들과의 대화는 어린 왕자를 당혹과 불안에 빠트린다. 한 번도 관습적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는 자신이 만난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말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웃 소행성의 어른들을 닮은 우리 자신들 역시 어린 왕자에게는 기이한 존재로 비칠지 모른다. 이 우화를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여섯 소행성과 지구에서 만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다양한 직업을 통해 풍자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인공 비행사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양이 든 상자, 모든 것을 무로 되돌려버리는 뱀의 독, 길들임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여우의 의례, 고향으로 떠나는 어린 왕자가 비행사에게 선물한 별들의 웃음소리를 짐작하기는 매우 어렵다. 생산적 소비와 현학적 지식만을 추구하는 어른들과 이를 따르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여우의 간곡한 진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Mais tu ne dois pas l'oublier. Tu deviens responsable pour toujours de ce que tu as apprivoisé. Tu es responsable de ta rose...<sup>31)</sup>

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넌 언제나 책임이 있어.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생텍쥐페리는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겪는 체험을 통해 접하는 낯선 존재에 대한 책임을 우의적인 이미지들로 전하며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드러낸다. 낯선 존재와 책임의 관계는 생텍쥐페리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주제로서 『어린 왕자』 이전의 작품에도 자주 등장한다. “열정의 위험보다는 열정을 솟아나게 하는 자유를 강조함에 따라, 자유를 따르거나 자유로부터 해방되는

30) '길들이다'는 '어떤 일에 익숙해지다.' 혹은 '행동하는 방법이나 생활 습관을 지도하여 올바르게 나가도록 하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예전에는 '질드리다'로 썼다. 세조의 불경 언해본들에 그 용례가 자주 나온다. “調御는 질드릴씨오” 『월인석보』(1459) 9:11; “남염부제(인간세계) 중생이 성이 강하여 질드려 항복하디 어렵거늘”, 『월인석보』(1459) 21:116; “그 마음을 질드려 굶붙이시고자 큰 智를 가르치시니”, 『묘법연화경언해』(1463) 2:252. 프랑스어 ‘apprivoiser’(tame)는 ‘동물을 길들이다’ 혹은 ‘서로 친구가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apprivoiser’는 의미상 ‘소유propriété’에서 벗어나는 의미를 상징할 수 있다.

31) *Le Petit Prince*, p. 300.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sup>32)</sup> 사르트르는 이러한 점에서도 생텍쥐페리를 실존주의 작가로 평가한 것이다.

Être homme, c'est précisément être responsable. C'est connaître la honte en face d'une misère qui ne semblait pas dépendre de soi. C'est être fier d'une victoire que les camarades ont remportée. C'est sentir, en posant sa pierre, que l'on contribue à bâtir le monde.<sup>33)</sup>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책임진다는 것. 그것은 자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던 비참함을 마주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동료들이 이루어 놓은 승리에 대해 긍지를 갖는 것. 자신의 돌을 갖다 놓으면서 세계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

인간관계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서로의 관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타인 역시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사르트르의 생각처럼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구속 받기 시작한다. 그녀를 바람으로부터 막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물을 주고 심지어 부리망을 만들어주려고까지 한다. 양이 바오밥나무를 먹는 동시에 꽃도 먹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려는 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장미가 부담스러워지자 장미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고 지구를 떠나고자 결심한다. 그리고 지구에서 만난 여우 덕분에 어린 왕자는 타인에 대한 책임에서 비롯하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한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행동은 인간의 선택을 나타낸다. 행동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다. 일단 책임을 방기하면 삶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는 책임을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장미에 대한 책임감에 어린 왕자는 자기 행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책임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책임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며, 선택의 자유에 의해 인간은 자신을 규정하고 무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애착이란 자유로운 구속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32) André Guigot, *L'Encylo de la PHILO*, Bayard, 2009, p. 47.

33) *Terre des Hommes*, p. 197.

선택과 관련된 의도의 한 유형'<sup>34)</sup>이다. 어린 왕자가 깨달은 것 역시 자신의 장미에 대한 애착은 결국은 자신이 장미에 대해 책임지는 것과 동일한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여우는 책임질 줄 아는 선택에 현존재의 참다운 자질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의 위대함은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데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자신의 일에 대해, 동료 이웃들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그들의 고통이나 희열을 자신이 품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다. 프랑스 실존주의의 기본 정신 가운데 하나 역시 인간은 그 행위 전체로 규정되며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데 있다. 어떠한 신성도 삶에 부여되지 않았다. 부조리한 세상에 던져진 인간은 불안 속에 자신의 행위를 책임져야 하기에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으며 언제나 선택하도록 선고받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부조리와 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유로운 선택에 있다. 습득한 지식으로서의 이론적 교의만으로 자신의 삶을 이룰 수는 없다. 진정한 삶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다. 『어린 왕자』에서의 자유 역시 타인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선택의 자유이다. 하이데거의 경우 실존이 무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무의 상태에서는 인간이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의 상태에 있던 어린 왕자는 장미가 나타나자 장미를 돌보겠다고 결심한다. 그것이 어린 왕자의 첫 번째 자유로운 선택이다. 많은 풀과 키 작은 나무들 가운데서 우연히 눈에 띈 장미를 선택한 것은 누구의 지시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어린 왕자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유로운 선택은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질문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줄 모르면서 사랑한 장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식과 일거리와 친구를 찾아 아무 문제가 없던 고향을 떠난다. 이 역시 스스로 정한 길이었다. 세 번째 선택은 죽음을 무릅쓰고 선택한 귀환이다. 장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 별로 돌아가는 어린 왕자를 만류하는 비행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장미를 길들였음을 알고 그를 돌보려 귀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선택은 책임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며, 책임은

34) André Guigot, *op. cit.*, p. 47.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이루어짐이며, 늘 선택 속에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적 자유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절대적 자유는 무에 이르고 나아가 인간과 세상을 결합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만 이를 뿐이다.

어린 왕자 역시 자신이 만나는 적대적이고도 우애적이며, 끔찍하고도 하찮은 이 세계에서 스스로 그 힘든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영원히 사랑의 선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어린 왕자의 사랑의 선택이 뱀과 여우와의 관계 맺음 속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친구를 찾아 나선 고독한 어린 왕자의 여행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어떤 지역, 시대, 사회에 속해 있어 무한히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없으며 자기가 속한 시대와 공간이 선택한 것만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집단이 배제한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우리의 자유와 자율성이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율성의 제한이 우리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므로 실존주의는 한 시대에 국한되는 사유나 담론이 지닌 한계를 파헤치는 존재론적 사유 방식과 연구 태도 즉 관계 맺음을 위한 사유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 IV. 실존으로서의 자기 초월

체험을 통한 사유의 전환을 전하는 생텍쥐페리 소설에는 종종 ‘의외적 논거 argument inattendu’가 등장한다. 타성적 이성에 의존하기보다 일상의 생동적 수사를 선호하는 생텍쥐페리는 주관 논거나 사실 논거로만 볼 수 없는 단순하면서도 뜻밖의 논거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며 순응적 논리를 경계하고 있다. “논리라고 했나? 논리로 어디 인생이나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시켜 보자.”<sup>35)</sup>며 논리적 학습보다 행동의 실제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생텍쥐페리 소설의 주제이자 현대 문학의 특성으로 전쟁과 건설, 영웅주의와 직업, 소유와 존재, 인간 조건과 더불어

35) *Terre des Hommes*, p. 264.

어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36)</sup> 『어린 왕자』에는 우리의 관습적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 존재를 바라보고 존재의 체험을 요구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도 그의 존재론적 증거의 의미를 드러내는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La preuve que le petit prince a existé c'est qu'il était ravissant, qu'il riait, et qu'il voulait un mouton. Quand on veut un mouton, c'est la preuve qu'on existe.<sup>37)</sup>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매력적이었고,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지. 누군가 양을 원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거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어른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린 왕자의 존재를 믿을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존재 증거를 그의 웃음과 양을 원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증명하려는 것은 논리를 벗어나 실제 상황과 체험을 근거에 하여 존재를 증명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차라리 “그 아이는 소행성 B612호 출신입니다.”라고 규격화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논쟁도 줄어들어 소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일상 현실에서는 이러한 존재 증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생텍쥐페리는 오히려 이를 당연시하고 아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탓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심지어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가 반복해서 질문을 하듯이 자신도 어린 왕자가 즐겨 사용하는 반복법을 통해 재차 이러한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소 진지하게 생각에 잠기게 하는 여운을 남기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Mais, bien sûr, nous qui comprenons la vie, nous nous moquons bien des numéros! J'aurais aimé commencer cette histoire à la façon des contes de fées. J'aurais aimé dire : “Il était une fois un petit prince qui habitait une planète à peine plus grande que lui, et qui avait besoin d'un ami...”

Pour ceux qui comprennent la vie, ça aurait eu l'air beaucoup plus vrai. Car

36) *Situation*, p. 238

37) *Le Petit Prince*, p. 246.

je n'aime pas qu'on lise mon livre à la légère.<sup>38)</sup>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동화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옛날 옛적에 저보다 좀 클까 말까 한 별에 사는 어린 왕자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지요…”라고.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에겐 그게 훨씬 더 진실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 책이 읽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다는 사실로 시작하였다면 어린 왕자의 존재가 더욱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에게 진정성의 근거는 행동에 있다. B330호에서 열심히 연구에 열중하는 지리학자를 만난 어린 왕자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여태까지 자신이 만났던 직업인들과는 달리가 학자의 직업이 진정성을 지녔다고 여긴다. 그의 작업은 실제로 많은 행동을 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소명에 반해 다가가서 누군가가 발견한 것을 확인하려 가느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지리학자는 현장 답사가 너무 번거로운 일이기에 탐험가에게 증거를 요구한다고 답한다. 커다란 산을 발견하면 그에 상응하는 커다란 암석을 가져오라고 시키면 되고 처음엔 연필로 기록하고 기다리다 이후 증거가 확보되면 잉크로 적는다는 것이다. 지리학자는 자신의 세계-로의-존재<sup>39)</sup>를 거부하고 있으며 타인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언행은 매우 역설적이다. 세상을 잘 보려 한다는 구실 아래 현실에 눈을 감고 행동을 포기하고 만 것이다. 오랜 추론에서 오는 긍정이 인간관계 차원에서 맺어진 체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객관화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sup>40)</sup>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사르트르가 주장하는 실존주의 문학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도 바로 체험의 중요성이다. 그 점에서 사르트르는 자신의 선배 세대 작가인 생텍쥐페리의 현대성을 인정하고 그를 자기 세대 작가에 포

38) *Ibid.*, p. 246.

39) 세계로 '열린' 현존 présence au monde

40) Jean-Louis Major, *Dialectique existentielle de Saint-Exupéry*, Thèse présentée à la Faculté de Philosophie de l'Université d'Ottawa, 1965, p.7.

합시켰다. 어쩌면 사르트르는 자신의 행동으로 철학을 이루어간 생텍쥐페리의 모험 속에서 실존주의의 길을 보고 『인간의 대지』를 실존주의의 기원으로 자리매김하였는지도 모른다. 생텍쥐페리의 비행술과 비행기는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비밀을 열고 세상을 바꾸는 행동의 도구였다.

Pour nous, le faire est révélateur de l'être, chaque geste dessine des figures nouvelles sur la terre, chaque technique, chaque outil est un sens ouvert sur le monde, les choses ont autant de visages qu'il y a de manières de s'en servir. Nous ne sommes plus avec ceux qui veulent posséder le monde mais avec ceux qui veulent le changer, et c'est au projet même de le changer qu'il révèle les secrets de son être.<sup>41)</sup>

우리에게는 ‘행동 faire’이 ‘존재 être’의 계시이며, 몸짓 저마다 땅에 새로운 형상을 그리고, 기술과 도구 저마다 세상을 향한 열린 의미로 다가오며, 그것들을 사용하는 양식에 따라 그만큼 사물들의 모습이 다양해진다. 우리는 더는 세상을 소유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세상은 세상을 바꾸려는 기도를 통해 자신 존재의 비밀들을 드러낸다.

이러한 존재와 소유의 문제는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와 지리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난다. 비즈니스맨처럼 세상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인식 체계는 당연히 존재의 비밀보다는 소유 문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굳이 소유에 상반된 것으로서 무소유를 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동안 소유 문제는 줄곧 존재 문제와 상치되는 개념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현대인은 과도한 소유욕으로 소유를 통한 지배 의지와 과시, 부의 잘못된 관념에 얽매어 있어 소유의 착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소유 문제를 철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생텍쥐페리는 이 문제를 존재에 대한 성찰을 저해하고 파괴하는 부정적 영역에 국한해 다루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영역에 한정시켜 소유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립적 이원론의 관념적 산물로 보인다. 생텍쥐페리의 존재론적 사유는 소유 문제에 대한 부정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존재와 소유를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인 두 개의 문제처럼 제시하는 것은

41) *Situation*, p. 236.

아마도 우리의 오해에 불과할 따름이다. 사실 이러한 우리의 오해에 경종을 울리더라도 하듯 생텍쥐페리는 소유 문제를 다루는 그 출발점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Moi, je possède une fleur que j'arrose tous les jours. Je possède trois volcans que je ramone toutes les semaines. Car je ramone aussi celui qui est éteint. On ne sait jamais. C'est utile à mes volcans, et c'est utile à ma fleur, que je les possède. Mais tu n'es pas utile aux étoiles.<sup>42)</sup>

난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날마다 물을 줘. 세 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는데 매주 청소를 해주지. 꺼진 화산도 청소하고. 누가 알아. 내가 화산과 꽃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이롭지.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이로울 게 없어.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의 소유에 관한 생각을 기이하게 여기는 이유는 ‘거짓’, ‘불의’ 등과 같은 사회 현상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모순’이라는 논리적 이유에서이다. 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관념적 지리학자는 사르트르 입장에서 보면 세계를 소유하려는 사람들 편이다. 사르트르가 세계 대전 이후의 현대적 작가들이 다룬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 소유와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소유가 이러한 접근보다 만인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소유 문제가 사회 현상적 접근, 윤리적 접근에 선행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리학자에게는 소유가 타인과는 무관한 자신의 만족과 관련한 현상이지만 어린 왕자에게는 소유가 대상의 이로움을 위한 행위이다. 다시 말해 소유 역시 하나의 관계 맺음으로 그 본질은 주체의 참여로서 책임에 있다. 장 루이 마조르의 표현처럼 사람들 사이의 만남은 소유 차원보다는 존재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사람과 사물과의 만남은 존재들에 대한 주체의 참여를 의미한다. 즉 대상을 소유하는 것은 결국 대상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sup>43)</sup>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소유는 근원적 문제이다. 그러기에 소유의 기능이 소유 현상에 선행한다. 소유는 빈부 현상에 선행하는 것 즉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자칫 현상의 수치에 매달리기 쉬운 법이다. “그럼 그 별들을 소유해서 뭐

42) *Le Petit Prince*, p. 275.

43) Jean-Louis Major, *op. cit.*, p. 65.

해?” 라고 어린 왕자가 묻는 말에 지리학자는 “나를 부자로 만들지.”라고 답한다. 다시 어린 왕자가 “부자 되면 뭐해?” 라고 물으니 “다른 별들이 발견되면 그걸 사는 데 쓰지.”라고 자신의 착실함을 강조한다. 그는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라며 소유의 근거를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본 사실에 둔다. 어린 왕자는 이러한 지리학자를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 Moi, si je possède un foulard, je puis le mettre autour de mon cou et l'emporter. Moi, si je possède une fleur, je puis cueillir ma fleur et l'emporter. Mais tu ne peux pas cueillir les étoiles!

— Non, mais je puis les placer en banque.

— Qu'est-ce que ça veut dire ?

— ça veut dire que j'écris sur un petit papier le nombre de mes étoiles. Et puis j'enferme à clef ce papier là dans un tiroir.<sup>44)</sup>

— 난 머플러를 가지고 그걸 내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 또 한 송이 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꽃을 따서 지니고 다닐 수도 있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팔 수 없잖아!

—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맡길 수 있지.

— 그게 무슨 말이야.

— 작은 종이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 서랍에 넣고 잠가 버리지.

어린 왕자는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리학자의 대답을 듣고 흥미롭게 여기기도 하고 나아가 꽤 시적인 일로 여기기까지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적인 일을 그리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와 매우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별을 바라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행자에게 별은 길잡이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저 작은 불빛이며, 학자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사업가에게는 돈이지만 이런 별들은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친구로서의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을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Quand tu regarderas le ciel, la nuit, puisque j'habiterai dans l'une d'elles, puisque

44) *Le Petit Prince*, p. 274.

je rirai dans l'une d'elles, alors ce sera pour toi comme si riaient toutes les étoiles.  
Tu auras, toi, des étoiles qui savent rire.<sup>45)</sup>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 어느 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어느 별에서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셈이지!

소유의 척도로서 숫자를 중시하고 소유의 착란에 빠진 경우 가장 슬픈 결과는 친구의 수는 불어나지만 정작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친구의 배신을 탓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친구를 잊고 살아가면서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텍쥐페리는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작가 자신도 이미 숫자에만 관심을 보이는 어른이 되어버렸다. 어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정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를 살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 친구는 인내의 산물이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잃어버린 것이다. 인간의 정신 활동은 우애와 우정의 산물인 것이다.

진정한 우정은 자신으로부터의 벗어나려는 욕구이다. 이러한 벗어나려는 『이방인』의 피르소가 사형당하기 직전 신부와 싸우고 나서 새벽별을 보며 ‘세상의 다정한 무관심 *tendre indifférence du monde*’을 깨달은 것 즉 낮선 존재와의 친밀함과 유사하다. 피르소는 세상의 낮선 친밀함 혹은 친밀한 낯센에 눈뜨면서 세상이 형제답고 나와 같음을 느낀다. 그리고 비로소 엄마의 뒤늦은 새 출발을 이해하고 자신의 죽음을 행복하게 여기게 된다. 이 위대한 인간적 철학자의 경우처럼 생텍쥐페리 역시 의식의 각성에 의해 철학적 성찰에 이른다. 고독과 의식들의 소통이 그것이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비행사도 어린 왕자와 소통하지 못하였다. 왕, 알코올 중독자, 허영장이, 비즈니스맨, 가로등지기과 어린 왕자는 모두 자신의 별에서 고독한 존재들이다. 어린 왕자와 비행사의 대화는 모두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자아에 갇힌 자신을 끄집어내려는 시도”로서의 내적 대화이다.<sup>46)</sup> 이 대화는 자아로부터

45) *Le Petit Prince*, p. 313.

46) Jean-Philippe Ravoux, *Donner un sens à l'existence ou pourquoi Le Petit Prince est le plus grand traité de métaphysique du XXème siècle*, Robert Laffont, 2008, p. 68

벗어나고 나와 남이 융화되어 우리가 되는 과정이다. 우정을 위해서는 길들여야 하고,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타인과 만나러 가야한다. 라캉이 말하듯 인간은 ‘내가 아닌 것’을 ‘나’로 ‘가정’하며 ‘나’를 형성하는 트라우마로 삶을 시작한다. ‘나’의 원점은 ‘나의 내부’에 없으며 심지어 데카르트와 정반대로 나는 내가 없는 곳에서 생각하게 된다.<sup>47)</sup> 인간은 사실상 자신에 관해 무지하며 심지어 자신 속 무엇이 자신을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자신에 몰입한다. 그래서 보들레르는 이미 시인이란 ‘한없이 내가 아닌 것non-moi을 갈구하는 나’라고 말하고<sup>48)</sup> 랭보는 더욱 본원적으로 “나는 남이다.”(「폴 드므니에게 보낸 편지」, 1871)라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인간의 고결함은 바로 자기를 벗어나 우리를 이루어가는 모습에 있다. 생텍쥐페리는 흔히 말하는 우리라는 개념조차도 벗어나 타인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다.

소유의 현존을 중시하는 물신사회에서의 인간의 순응주의, 나약함, 자포자기, 이기심 그리고 천박함과 타락을 비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소위 참여문학이나 실천문학 관점에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앙드레 지드가 생텍쥐페리의 『야간 비행』의 서문에서 우리로 맺어진 비행사들의 행동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한다.

la littérature de nos jours n'est que trop habillé à les dénoncer ; mais ce surpasement de soi qu'obtient la volonté tendue, c'est là ce que nous avons surtout besoin qu'on nous montre.<sup>49)</sup>

오늘의 문학은 이것들을 비난하는 데 너무도 능숙하다. 하지만 자기 초월이란 긴장 상태의 의지로 구해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47) “Je pense où je ne suis pas et je suis où je ne pense pas.” -Jacques Lacan, *Ecrits*, Seuil, 1966. Cité in André Guigot, *op. cit.*, Bayard, p.18.

48) Charles Baudelaire,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in *Critique d'art, Œuvres complètes* I,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Claude Pichois,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75, p. 692.

49) Antoine de Saint-Exupéry, *Vol de Nuit*, Gallimard, 1931, p. 4

『어린 왕자』에서 뱀은 여우와 달리 어린 왕자가 허물을 벗고 자기를 벗어 나게 해주는 지혜의 화신이다. 인간을 피해 사막에 숨어 사는 여우는 교활하고 간악한 동물이 아니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지성의 소유자이다. 어린 왕자의 마음을 일깨우는 여우는 냉철한 지성을 지녔으나 정작 지성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 지리학자의 말을 믿고 지구를 찾은 어린 왕자가 처음 만난 것은 뱀이었다. 달빛 고리처럼 모래 속에서 꿈틀거리는 뱀을 보고 엉겁결에 뱀과 인사를 나눈 어린 왕자는 다정히 대화를 나누나 사막의 돌 위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 보며 말한다.

Je me demande, dit-il, si les étoiles sont éclairées afin que chacun puisse un jour retrouver la sienne. Regarde ma planète. Elle est juste au-dessus de nous...Mais comme elle est loin!<sup>50)</sup>

별들이 환히 빛나는 건 언젠가 저마다 자기별을 다시 찾아낼 수 있게 하려는 건 아닌지 궁금해.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 위에 있어...그런데 참 멀기도 하군!

자신을 사랑해준 장미를 찾아 소행성 B612호로 돌아가고픈 마음에서 우러 나온 어린 왕자의 진정 어린 독백이었다. 하지만 그는 회한하고 가느다랗게 생긴 뱀에게서 아무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겼다. 어린 왕자의 이런 속셈을 간파한 뱀은 어린 왕자 발목을 금팔찌처럼 휘감으며 날카로운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암시하는 전문 상담 같은 답을 준다. 뱀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는 왕의 손가락보다 강하고 지혜롭기에 어린 왕자를 누구보다 더 멀리 데려갈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나온 땅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그런데 순진하고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인 만큼 고향이 그리우면 언제고 그를 귀환시켜 주겠다고.

— Tu me fais pitié, toi si faible, sur cette Terre de granit. Je puis t'aider un jour si tu regrettes trop ta planète. Je puis ...

— Oh! J'ai très bien compris, mais pourquoi parles-tu toujours par énigmes?

— Je les résous toutes.<sup>51)</sup>

50) *Le Petit Prince*, p. 286.

51) *Le Petit Prince*, p. 288.

- 참 딱하구나. 그렇게 약한 몸으로 이 삭막한 지구에 왔으니. 너의 별이 너무 그리울 때면 언제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난…
- 아! 잘 알겠어. 그런데 넌 줄곧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니?
- 난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고 스스로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뱀.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의 서두에서 소개한 자신의 그림 1호의 모자로 보이는 그림 속 코끼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대한 폭력 독일 나치를 그린 것이며, 자기보다 덩치가 큰 포악한 코끼리를 통째로 삼키는 뱀은 평화의 상징이다.<sup>52)</sup> 허물을 벗지 못한 뱀은 죽은 뱀이라는 니체의 말과 같이 뱀은 어린 왕자에게 허물 벗는 법 즉 자신을 벗어나는 약을 선물한다. 하지만 이 허물벗기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어린 왕자는 자신의 죽음을 염려하는 비행사에게 “몸이란 벗어젖힌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가 슬플 건 없잖아…”라고 위로한다. 비행사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위안하며 곧 죽음의 잠에 들 어린 왕자에게 애절한 감정을 느낀다.

Ce qui m'émeut si fort de ce petit prince endormi, c'est sa fidélité pour une fleur, c'est l'image d'une rose qui rayonne en lui comme la flamme d'une lampe, même quand il dort...<sup>53)</sup>

이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몹시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야. 잠들어 있을 때도 등불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 모습 때문이지…

어린 왕자와 비행사의 내적이고 친밀한 대화는 사랑이 우리를 관습적 자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자아에 갇힌 자신을 끄집어내려는 감정의 체화 과정임을 깨닫게 한다. 여우의 말을 듣고 사막의 장미 정원을 다시 찾아간 어린 왕자는 오천송이 장미꽃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52) Paris AP통신이 보도한 필사본 전문가 올리비에 드베르Olivier Devers의 생텍쥐페리 수고 경매 감정 결과 기사 참조. <http://cridem.org/imprimable.php?article=629093>

53) *Le Petit Prince*, p. 304.

에 혼한 장미와 같고 그래서 장미꽃들은 텅 비어있다고 말한다. 아무도 장미꽃을 위해 죽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어린 왕자는 조용히 침묵을 기다려 준 장미를 위해 죽으려 한다. 함께 나눈 사랑과 재결합하려면 길들여야 하고, 타인을 만나러 가야하며, 보이는 것 속에 숨어 있거나 혹은 어른들이 금지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비행사에게 어린 왕자의 사랑은 죽음이라는 장엄한 의식을 통한 자아 자기 희생적 간청으로서 스스로 희생하면서 희생당하는 자가 이루는 자기 초월이다. 뱀은 어린 왕자에게 자기희생을 선택하게 한 것인데 그 결과 어린 왕자는 예전의 자아로부터 벗어난다. 보들레르가 사랑으로 표현한 활과 화살의 관계처럼 사랑이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을 버림으로써 그 대상과 융화되려는 욕구이다.<sup>54)</sup> 장미와 어린 왕자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받았지만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자아 초월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에게 자신을 열어 간다. 어린 왕자의 여행은 이렇게 자기 초월을 통한 사랑의 구도 여행기 성격을 드러내며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 이번에는 지구로 떨어질 때보다 더욱 힘든 귀환의 여행이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어려운 여행에서 살아남아 장미와 재회하고 그녀를 위해 별을 지키겠다는 기대 속에 진행되는, 관습화된 나로부터 벗어나는 탈자아의 여행인 것이다.

## V. 결론: 직업의 재발견

어린 왕자가 만난 어른들의 직업 가운데 그의 흥미를 크게 끈 것은 가로등지기과 지리학자였다. 적어도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가로등지기의 탈자아적 모습에 그를 친구로 삼고 싶었던 어린 왕자는 그 수동적 성실함에 실망하고 그를 떠나 지리학자가 살고 있는 소행성 B330을 찾아가간다.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를 만나 처음에는 그의 학문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하리라 믿고 그의 직업이야말로 진정한 직업의 전범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왕자는

54) Charles Baudelaire, *Fusées* I in *Journaux Intimes, Œuvres complètes* I,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Claude Pichois,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75.

곧 장미처럼 순간적이고 덧없는 것들을 무시하고, 보편 영원한 것들만을 중시하는 지리학자의 말에 실망하지만, 자신 역시 언제 사라질지 모를 위험에 놓인, 자신을 길들인 장미를 버려두고 왔음을 깨닫게 되어 소행성 B612를 떠난 후 처음으로 후회의 감정을 느낀다. 관습적 자아 속에 안주할 뿐인 가로등지기, 지리책의 관념에만 갇힌 지리학자, 이 두 직업은 모두 그가 비행사로서 부딪혀야 했던 항공사 관료들의 자아중심주의와 물질중심주의 직업관을 풍자한 것이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물질적 풍요를 목표로 삼지만, 생텍쥐페리의 작품 속 윤리적 인간은 인간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일을 책임지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여정에서 생텍쥐페리는 자신에 안주하지 않고 자아를 초월할 수도 있던 하나의 장엄한 존재의 예를 직업에서 찾았다. 실제로 그는 전투 조종사로서는 많은 나이와 악화된 건강을 무릅쓰고 정찰 비행 임무를 수행하다 1944년 7월 31일 지중해 상공에서 자신이 몰던 미국의 쌍발 전투기 P-38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 안주를 거부하는 자아, 한 곳에만 머무를 수 없는 어린 왕자처럼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마지막에는 죽음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을 낫선 자신으로 대체해간 것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시각을 드러내는 『어린 왕자』는 이렇게 일상의 직업에서 만나는 실존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상의 삶으로서의 직업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사물의 겉모습 너머로 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로 넘치는 세상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고독한 삶을 무릅쓰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다양한 대화를 통해 일상의 순응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삶에 대처하게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무엇으로서의 직업을 재발견하게 된다. 직업은 일다운 일을 발견하게 하고, 일의 발견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게 한다. 그리하여 남들이 원치 않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일을 찾아가는 또 다른 나를 깨닫게 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앙드레 기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La réalité humaine, c'est le travail. L'humanisation de son travail, c'est sa libération ; sa liberté travaillée, sa réalisation.<sup>55)</sup>

55) André Guigot, *op. cit.*, p. 140.

**인간의 실재**는 바로 일이다. 인간이 하는 일의 인간화 그것이 인간 해방이요, 인간이 공들여 쌓은 자유이자, 인간성의 실현인 것이다.

생텍쥐페리 역시 직업의 의미를 끊임없이 재발견하면서 그 과정의 노력을 작품으로 형상화해 갔다. 그리고 인간에게 허용된 유일한 사치인 인간관계로서의 직업 의미를 가장 쉽고 함축적인 우화 『어린 왕자』로 남겼다. 그는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전투에 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인 비행사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정찰 비행으로 마무리한다. 생텍쥐페리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남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것, 자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기록하였다. 자신 속에 머무는 자 혹은 자신을 대체하지 않는 자는 합리적인 목표를 지닌 일의 묘미를 알아보기 어렵다. 직업은 흥미로워야 하고 흥미로워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남들과 다르게 보지 않으면 자신의 일 속에서 자신만의 그 무엇을 찾아내기 어렵다. 직업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겠지만, 직업의 이러한 본질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란 사실 궁극적으로 만인이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구로서의 비행기와 직업으로서의 비행을 통해 만나는 별들 사이에서 생텍쥐페리는 누구도 보지 못한 별의 진실을 보았다.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직업과 전쟁 문학으로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의 기원을 이룬 생텍쥐페리의 마지막 작품 『어린 왕자』의 본질 역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직업을 통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의 본질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이 짧은 우화가 우리의 실존을 생각하게 하고, 타인을 위해 존재하게 하는 직업의 본질에 눈뜨게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생텍쥐페리의 소설에 관한 철학자들의 비평은 다양한 이론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 특히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그리고 메를로퐁티는 실존철학 관점에서 생텍쥐페리의 작품 속 직업을 통해 드러나는 직업의 존재론적 의미를 이론화하였다. 사르트르는 생텍쥐페리가 직업에 관해 밝힌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로 인해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카뮈 역시 생텍쥐페리의 인간관계에 관해 공감하고 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미루어 그에게 경도되어 있었던 같다. 나아가 생텍쥐페리는 동시대 사상가 바타유가 강조한 “강렬한 문학과 신비 체험의 강렬함”<sup>56)</sup>이 가리키는 지점으로서 가시

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이 소통하는 지점을 재현하고 있다. 야간 비행에서 만나는 별들과 사막의 여우 페넥크를 통해 체험한 존재의 신비가 생텍쥐페리의 문학과 소통하는 지점에서 신비로운 우화 『어린 왕자』가 탄생한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탐사 비행, 예기치 못한 낯선 존재와의 우정, 길들임의 깨달음과 책임을 다루고 있는 『어린 왕자』는 등장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직업의 한계성 곧 개인과 사회의 접점으로서의 일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상적 대화 소재로서 자주 등장하는 문학 이론으로서의 실존주의가 다루는 ‘존재’, ‘존재자’, ‘현존재’, ‘세계-내-존재’ 등의 용어들은 개인의 독자적 가치를 넘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문학 이론이 개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탈자아 자세로 동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20세기에 쓰인 위대한 실존주의 저술 가운데 한 권으로 추천한 것은 그만큼 실존철학의 의의를 대중화 한 데 대한 찬사의 표현이자, 난해한 존재론 용어들을 일상용어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일 것이다. 더구나 독일 나치 정권에 부역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던 하이데거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가 쓴 우화를 마주하고 현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재발견했는지도 모른다. 생텍쥐페리의 작가로서의 탄생은 비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간관계라는 진정한 사치를 볼 줄 알게 된 비행사 직업의 재발견이듯이.<sup>57)</sup> 『어린 왕자』 같은 대중화된 의미 있는 작품을 통해 프랑스 문학 이론을 대중화하는 기회를 확장하여 일반 독자들이 자신의 직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더욱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열어갈 것을 기대해본다.

56) Georges Bataille, *La littérature et le mal* in *Œuvres Complètes* IX, Gallimard, 1979. p. 186.

57) Antoine de Saint-Exupéry, *Œuvres complètes*, tome II, 1999, p. 787.

■ 참고문헌 ■

- Albert Camus, *Le mythe de Sisyphe*, folio essais, 2013.
- André Guigot, *L'Encyclo de la Philo*, Bayard, 2009.
- André Lalande, *Vocabulaire technique et critique de la philosophi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0.
- Antoine de Saint-Exupéry, *Wind, Sand, and Stars*, Reynal & Hitchcock, 1940.
- \_\_\_\_\_, *Le Petit Prince*, Collection Folio, 1999.
- \_\_\_\_\_, *Œuvres complètes*, tome I, II, Gamiilard, 1999.
- Bryan Alan Smyth, *On the Problem of Exupérien Heroism in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Perception*, Department of Philosophy, McGill University, Montréal, 2005.
- Jean-Louis Major, *Dialectique existentielle de Saint-Exupéry*, l'Université d'Ottawa, 1965.
- Jean-Paul Sartre, *Qu'est-ce que la Littérature?*, Gallimard, 1948.
- Jean-Philippe Ravoux, *Donner un sens à l'existence ou pourquoi LE Petit Prince est le plus grand traité de métaphysique du XXème siècle*, Robert Raffont, 2008.
- Lenka Hodrmentová, *Les Réseaux d'isotopies dans LE Petit Prince*, Brno, 2010.
- Martin Heidegger, *Hegel's Phenomenologie of Spirit*, trans. P. Emad and K. Maly, Bloomington, Indiana, 1994.
- Maurice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Édition Gallimard, 1945.
- Michel Quesnel, *Saint-Exupéry ou la vérité de la poésie*, Plon, 1964.
- Paul Meunier, *La philosophie du Petit Prince ou le retour à l'essentiel*, Le Petit Philosophe, 2013.
- Wang Mu, *Les Pensées Existentialistes dans LE Petit Prince*, Canadian Social Science, Vol. 8, No. 6, 2012.
- 양투안 드 생텍쥐페리, 『사람들의 땅』, 송태효 역, 고대출판부, 2009.
- 양투안 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송태효 역, 새로운사람들, 2014.

## ■ Résumé ■

### La Compréhension de la vision existentialiste du métier apparue dans *Le Petit Prince* de Saint Exupéry : une étude de la popularisation métaphysique de la théorie littéraire

SONG Tai-Hyo

Comme Martin Heidegger a apprécié à juste titre *Le Petit Prince* en tant que l'un des grands livres existentialistes du vingtième siècle, ce petit conte nous en apprend long sur l'existentialisme français plus concrètement que des manuels de philosophie. Parce qu'il nous amène à la compréhension de la signification ontologique de nos métiers. Quand il s'agit de la critique littéraire, à n'en pas douter, Sartre nous dirige à la littérature d'outil et de métier en tant qu'attitude majeure des romans de Saint Exupéry. Maurice Merleau-Ponty, pour sa part, a mis l'accent sur l'héroïsme de Saint Exupéry qui vit jusqu'au bout sa relation aux hommes et au monde. C'est justement dans cette relation que l'homme peut trouver sa liberté en regardant différemment la réalité visible pour être la présence-au-monde. Pour le pilote doué d'une imagination active, toujours voyageant dans le monde de son temps, il s'agit de faire venir en présence l'essentiel invisible en s'appropriant lui-même. Pour atteindre cet apprivoisement ascétique d'un soi autonome, il faudrait sortir de soi-même pour la prolifération du moi impersonnel par le biais du sens aigu de la responsabilité. L'apprivoisement se veut par conséquent aussi métaphysique que physique. Ces deux traits principaux de l'apprivoisement constituent en propre le domaine de l'univers exupérien qu'est en quelque sorte ce que le petit prince nous amène à trouver. C'est dans ce domaine pratique que l'homme renaît comme renaît Saint Exupéry en écrivant ce qu'il a découvert en pilotant.

De ce fait cette pensée pratique de Saint Exupéry ne nous autorise pas

à aborder la conscience littéraire par le biais prétendu traditionnel et ceci à l'encontre de l'approche de la littérature de la consommation qui nous est en effet coutumière. Car il relève de la littérature de la production elle-même que Saint Exupéry tentait de populariser. C'est en élargissant l'occasion de populariser la théorie littéraire française à travers les œuvres populaires tels que *Le Petit Prince* et *Terre des Hommes*, les lecteurs vont retrouver dans son métier un nouveau monde de l'esprit afin d'améliorer la valeur de leur travail.

주제어 : 생텍쥐페리(Saint Exupéry) 어린 왕자(Petit Prince), 실존주의(existentialisme), 직업(métier), 정신(esprit)

\* 논문 투고일: 2016년 4월 15일 \* 심사 완료일: 2016년 5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5월 13일